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실태

- 대만의 한국어 교사 양성 문제를 덧붙여 -

채련강*

1. 머리말

먼저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외국어교육 外語教學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인가 아니면 '제2외국어교육 第二外語教學(Teaching Chinese as a Second Language)'인가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언어교육학계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용어는 '교육 환경(setting)'에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며, 결코 학생이 하나의 외국어를 배우거나 재차 제2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언어와 교실 밖에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다면 '제2외국어교육'이라 부르며,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언어와 교실 밖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면 '외국어교육'이라 부른다. 그래서 Mandarin(화어 華語·국어 國語·보통화 普通話·한어 漢語)을 표준어로 사용하는 대만·중국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을 가르치거나 한족

*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이 아닌 소수민족이 Mandarin을 학습한다면, 이를 '제2외국어교육'이라 말할 수 있겠다. 반면에,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어를 가르친다면, 이는 '외국어교육'이라 한다.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을 중국대륙에서는 '대외 한어 교육 對外漢語教學'이라 하며 대만에서는 '대외 화어 문 교육 對外華語文教學'이라 부른다.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주어진 교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2외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은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겠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이미 사오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난 시절 정치·경제 각 방면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문화의 전통을 보전하였던 대만은 교육학 분야에서도 중국 대륙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 그 당시 대만은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선택지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중국 대륙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로, 세계 각 국은 12억 인구를 품에 안은 거대한 시장인 중국과 앞다투어 수교를 맺기 시작했다. 중국어는 오늘날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이기도 해서, 어떤 이들은 21세기가 중국인의 세기가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중국어는 현재 전 세계 20%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에 없는 중시를 받고 있다. 20세기 말, 전 세계에 중국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미국 및 일본·한국의 각 대학에 몇 년 사이에 중국어를 수강하는 학생이 외국어를 수강하는 전체 학생 수 가운데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열풍은 한참 일고 있는 중이라 앞으로 일어십 년 동안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중국 대륙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일 먼저 '국가 대외중국어 교육지도 분과사무실 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을 만들어 중국어 교육을 적극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중점대학에 대외중국어센터를 설립하여 대대적으로 학생을 모집 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학원에 석사반과 박사반을 만들어 중국어 교사

를 양성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해외의 여러 학교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떠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해외 학교로 하여금 분교나 여름학교 등을 중국에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교사를 해외로 교육·연구 및 연수과정으로 파견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경대학 北京大學 한 곳만 해도 40여 국의 140여 대학과 차례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재 방면에 있어서도, 과거의 고루하고 관에 박힌 내용들을 완전히 개선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 대학에서 교재를 편찬하는 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중국어 학습교재를 출간하는 등, 많은 교재가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대만이 따라가지 못하는 바이다.

초창기 대외중국어 교육분야에서 볼 때, 대만은 그 출발이 중국 대륙보다 이르고 생활수준과 교육방식 역시 대륙보다 나은 편이어서 수십 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려는 많은 외국인들이 대만을 선호하였다. 특히 종교인과 중국학 연구에 종사하려는 이들이 대만을 많이 찾아왔다. 국립대만사범대학교 부설 국어교육센터 하나만 해도 1967년 설립 이후 60여 개 나라의 삼 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전 세계의 중국어 열풍을 타고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중국 대륙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인할 것도 없이, 지난 시절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러 대만을 찾은 주된 목적은 대륙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대륙과 교류를 갖고자 해서였다. 그들이 대만을 선호한 까닭은 바로 대만의 당시 정치상황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생활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고 생활용품 역시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의 최근 몇 년간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대만의 꾸준한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중국어를 배우러 대만을 찾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양안 兩岸의 중국어는 사오십 년 동안 제각기 발전한 상황이라 문자·발음·어휘 및 상용어 등의 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벌어진 데다가 피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대륙의 언어·문자 체계가 중국어의 주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12억의 거대한 시장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양안 어느 쪽의 중국어가 좋으나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중국 대륙의 '보통화 普通話'는 기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대륙의 문화와 명승고적이 대만에 비해 풍부하고 자연환경도 수려해서 중국 대륙의 정치·경제가 더 한층 개선된다면 몇 년 안에 절대 다수의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 대륙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국 대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대만의 기존 대외중국어 교육분야의 위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대륙으로 그 중심 축이 기운 상황이다. 상술한 몇 가지 요인 외에도,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분야의 침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현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측면에 더욱 주안점을 두어 현 대만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를 바탕으로 대만의 한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대외한국어 교사 양성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2.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현황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해외 교민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이다. 해외 교민을 위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

은 현재 대만 교육부 산하 ‘교민교육위원회 僑民教育委員會’에서 관장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해외 교민을 위한 교육 정책·해외에 산재하는 타이베이 학교 및 정규 화교학교의 교과과정·교재 및 교사 양성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중국은 청 淸 나라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있는 일반인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민 업무는 애초 없었다고 하겠다. 청나라 광서 光緒 31년(1905) 양광 兩廣(광둥과 광서) 총독 잠춘훤 岑春萱이 유사기 劉士驥를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하였고 후에 청 조정에서도 임문경 林文慶을 파견하여 동남아 東南亞 일대에 교육을 권장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포들을 소집하여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상의했다. 이것이 중국 정부가 교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첫 시작이었다. 신해혁명 辛亥革命(1911년)이 성공한 후, 중화민국 中華民國정부는 해외 교민들의 혁명에 끼친 지대한 공헌으로 인하여 더욱 교민 업무를 중시하기에 이르렀고 교민 교육의 보급 및 지도에 더욱 힘을 써왔다.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철퇴한 후에도 행정원 行政院 산하에 ‘교민업무위원회 僑務委員會’를 만들어 교민 업무를 전담시키는 외에도 교육부 산하에 ‘교민교육위원회 僑民教育委員會’를 설립하여 교민 교육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한 후에도, 계획적인 교민 업무 처리로 이미 14만여 명의 교민이 대만 소재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중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생은 7만여 명에 달한다. 대만에 돌아와 진학했던 대학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교민 사회로 돌아가 중국어 교사가 되었다.

해외 교민학교의 중국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해외 중국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의 연수과정을 돕기 위하여, 교육부 교민교육위원회와 행정원 교민업무위원회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해외 중국어 교사 단기 연수과정을 대만에서 열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자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해외에서 강의나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

을 입은 중국어 교사가 이미 수천 명에 달한다.

교민을 위한 대외중국어교육은 본 논문의 중심이 아니므로,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는 데 그친다. 이제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이미 사오십 년 동안 실시해온 상태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은 공립·사립을 다 합쳐 매우 많은 편이다. 일일이 거론하자면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국어교육센터 國立臺灣師範大學 國語教學中心·국립대만대학교 국제중국어센터 國立臺灣大學 國際華語中心·국립정치대학교 언어시청각교육센터 國立政治大學 語言視聽教育中心·국립중산대학교 중국어센터 國立中山大學 華語中心·담강대학교 중국어센터 淡江大學 華語中心·봉갑대학교 국어국문교육센터 逢甲大學 國語文教學中心·중국문화대학교 중국어센터 中國文化大學 華語中心·구국단 해외청년트레이닝센터 救國團 海外青年活動中心·국어일보사 國語日報社·중국어문강습소 中華語文研習所·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 등이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은 민간 방면으로는 현재까지 단지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에서 대외적·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중국어 교사 양성 고급 연수반과 단계별 연수과정반 뿐이며, 대학 방면으로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국어교육센터의 '중국어 교사 고급연수강습반 華語教師進修講習高級班'이 있으며 정규과정으로 인가된 대외중국어 교사양성기관으로는 1995년에 설립된 국립대만사범대학교의 '중국어교학대학원 華語教學研究所'가 졸업 후에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유일한 대학원이다. 이밖에도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어학센터 語文中心·국립정치대학교 언어시청각교육센터·중국문화대학교 중국어센터·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의 '보급교육을 위한 학점 없는 중국어 교사 양

성반 推廣教育非學分華語師資培訓班' 등이 대외중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1년 초에 단기 양성반을 차례로 개설하였을 뿐이다.

교사 양성으로 말하자면, 중국 대륙은 현재 많은 대학에서 '대외중국어 교학 對外漢語教學'이란 전문적인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반·박사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은 단지 정규 석사반 과정이 하나뿐이며 그 외에는 모두 소규모의 학원 수준의 단기 양성 과정이란 점을 돌이켜볼 때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대륙은 과거 오랜 기간 외부세계와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분야 역시 대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최근 이십 년 동안 급속히 맹추격하여 지금은 여러 면에서 대만을 추월하였으며 특히 교사 양성 및 교재의 편찬 방면에서는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이 낙후된 근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대략 두드러진 원인 몇 가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처음부터 대외중국어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 예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대학의 중문학과를 졸업만 하면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편향된 생각 때문이며, 셋째 대외중국어 교사가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고, 넷째 국내의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정부 주도형의 기관도 없어서 강력한 힘을 갖고 그 일을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섯째 최근 들어 정부가 강력히 주장하는 본토화 本土化(대만 독립과 대만어 객가어 客家語 사용)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대만은 요즘 들어서야 중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임을 새삼 느꼈다. 또 나날이 빈번해지는 양안 학술·경제의 움직임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경제체제의 도래에 발맞추어 세계 각 국 사람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이에 따라 절박해지면서 전문화된 중국어 교육제도를 건립하여 대외중국어 교사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

다는 점을 각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어 교재 및 교육방식 연구와 보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에 생각이 미쳐서 여러 차례의 노력 끝에 비로소 1995년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 중국어를 제2언어(혹은 외국어) 교육으로 삼는 전문 대학원이 설립되었다.

이에 민간 조직의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대학기구인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어학센터(그 밖의 다른 대학의 단기 대외중국어 교사 연수반은 성질과 개설 과목 및 성립 시기가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아 본문에서는 그중 대만대학교를 표본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및 정규 석사과정의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 華語教學研究所’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는 1977년에 창설된 전 세계의 중국어를 사랑하는 교육인들이 함께 모여 조성한 학술단체로, “중국어 연구를 선도하며 중국어 교육의 발전을 보조하며 세계 중국어 학술의 교류를 촉진시키는(倡導中華語文的研究, 輔助華文教育的發展, 促進世界華語文學術的交流)” 것을 그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다. 7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중국어 열풍으로 해외 각 대학에 증어중문학 과정이 개설되었다. 당시 국내의 대외중국어 교사가 많이 부족한 터라 해외 여러 단체들이 교민업무위원회로 대만에서 대외중국어 교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교민업무위원회는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에 위탁하여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반을 만들었다. 이 학회는 이로 인하여 대만대학교·대만사범대학교·정치대학교 등의 대외중국어교육에 열성적인 교수들과 연합하여 1977년 공동기획으로 ‘중국어교육 교사 연수

반 華語文教學師資研習班'을 개설하고 해외 유학을 준비중인 중국어를 과외로 가르치려는 학생 및 졸업 후 교민 사회로 돌아가 교사로 재직하기를 희망하는 화교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9주간의 전문훈련과정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120기 동안 수료생 5천여 명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대만 내의 16개 대학의 언어센터에 재직하는 것을 빼고는 대부분 해외에서 중국어 교육학계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교육을 위해 많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였고 그 중에는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이가 적지 않다. 이 학회는 중국어 교사 양성반의 교과과정이 충실하고 교육방식이 엄정하기 때문에 미국·영국·호주 등지의 여러 대학들이 이 과정에 대해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어를 가르치는 조교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해당 학회에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그 학교에서 교직을 맡기기도 한다.

대외중국어 교사 연수반의 연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어교육법: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학 방법 (18시간)
- ② 중국어음성: 음성학 원리를 응용한 기교와 특성 (18시간)
- ③ 중국어어법: 중국어 문법의 연구와 난제 연구 (18시간)
- ④ 중국어표준발음: 중국어의 정확한 발음 훈련 (9시간)
- ⑤ 발음기호: 중국어의 발음·부호와 그 발음표기법 (6시간)
- ⑥ 문자구조: 중국문자의 변화구조와 정체자·간체자의 비교 (12시간)
- ⑦ 자형교육: 중국문자의 특성에 따른 필형·필순 등의 교육 방법 (6시간)
- ⑧ 중국문학: 중국문학의 특색과 작품 감상 (6시간)
- ⑨ 시청각교육: 정보화 기술을 통한 중국어 교육상의 응용 (6시간)

이와 같은 중국어교육 전문과정·문화 및 그 관련 과정은 9주간 총 102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시험을 통해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중국어 교사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

이 학회는 국내 중국어 교사 양성 외에도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시카고 및 캐나다 토론토·몬트리올·밴쿠버 등지에 여러 차례 교육강습회를 주최하여 해외에 사는 중국어 교사들이 재직 중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알찬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학회의 탁월한 공신력으로 인하여 프랑스 종합이공대학 ECOLE POLYTECHNIQUE·필리핀 중정이공대학 中正理工大學 등이 학생을 위탁하여 대만에서 중국어과정을 연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부·경제부 같은 정부기구들도 이 학회에 위임하여 매년 베트남 중국어 교사를 대만의 중국어교육 연수과정에 연수하게 하고 엄선된 학자들을 해외 주재 타이베이 학교에 보내어 시범 교육 및 '중국어 능력시험 華語文能力測驗'을 제작하게 하였다. 현재 이 시험은 대만 제일의 공신력을 갖춘 교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이 되었다.

민간 조직인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는 국내외 중국어 교사 양성, 국내 또는 국제 회의 개최, 해외 중국어 교육학 학술세미나의 적극적인 참여, 중국어 교육학 연구 계획의 진행, 중국어 학술간행물의 발행에서부터 세계 중국어 교육전산망 웹기반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어 교육과 연구 등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에 언급했듯이 대만에 첫 번째 대외중국어교육대학원을 설립하도록 촉구하기까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라는 조직이 없었다면 대만 지역의 대외중국어교육은 절대로 현재의 이러한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노력과 공헌은 실로 그 어떤 단체도 함께 논할 수 없다 하겠다.

2)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어학센터

국립대만대학교 문과대학 부설 어학센터는 국내외에 중국어 교육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전문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1년 3월부터 중국어 교사 단기 연수반을 열고 있다. 그 모집 대상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에서 국내외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된다.

그 교과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어교육학총론
- 중국어문개설(언어와 문자)
- 중국어 음성과 표준발음
- 발음표기법
- 중국어문법교육
- 사회언어학
- 문자학 기본지식
- 자원 字源 분석
- 자형 字形 교육
- 중국어 어휘와 문화 이해
- 제2외국어습득
- 중국어 교과교재연구
- 강의활동설계
- 시청각과 중국어 교육
- 중국어신문 해독방법
- 서면어 교육
- 초·중·고급 교재 소개와 교과과정설계
- 교생실습

수업 시간은 매주 12시간, 총 96시간이며 구두시험·필기시험 및 교생 실습을 통과한 합격자에게 중문·영문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하며 올해 (2001)부터 실시하여 현재 제3기까지 사회에 배출한 상태라 그 효과가 어떠한지는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다른 대학의 대외중국어 교사 단기 양성반의 과정도 주로 음성·어법·교과교재연구·중국문자학·문화연구·사회언어학·심리언어학 등을 포함하며 모두 필히 시험전형을 통해서야 교직을 담당할 수 있다. 역사가 모두 짧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3)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

이 연구소는 1996년에 설립된 대만 최초의 유일한 중국어를 제2외국어 교육으로 삼는 석사반을 갖춘 정규 전문대학원이다. 이 대학원은 중국어 교육연구와 교사 양성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중국어 교육의 전문화·학술화 및 국제화에 매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외 일류의 대외 중국어교육 및 교민학교 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5가지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어의 전문화·학술화 및 국제화를 추진한다.
- ② 최고의 국내외 대외중국어교육 및 교민학교 교사를 양성한다.
- ③ 중국어를 외국어로 삼아 교육학 이론과 방법을 연구한다.
- ④ 전 세계 중국어 교재 및 언어측정을 발전시킨다.
- ⑤ 최신의 중국어 교육의 기자재와 미디어를 개발한다.

이 대학원은 석사반 교육을 몇 년간 실시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는 즈음에 맞춰 박사반 과정을 설립하여 중국어 교육학계의 지

도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 대학원의 강의는 모두 중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들에게 맡기고 있다. 현재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지닌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언어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네 분의 전임교수와 해당 학교 중어중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사학과 · 지리학과 및 대만대학교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 대학원의 교과과정은 과학기술 통합방식으로 계획하여 최신의 교육학 이론과 교육 미디어 통합방식 및 중국언어학과 일반언어학이론의 결합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개설한 교과과정 및 석사반 대학원생들의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① 필수과목(9학점 이수)

중국어 교과교재연구(Chinese Language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3
중국 언어학(Chinese Linguistics)	3
중국어 어법(Syntactic Structures of Chinese)	3

② 교육학 방법(최소 7학점 이수)

중국어 음성 교육학연구(Studies in Phonetic Instruction in Chinese)	3
중국어 표준발음 교육연습(Practicum in Mandarin Pronunciation Pedagogy)	3
고급중국어 교과교재연구(Technical Chinese Instructional Materials)	3
중국 방언 교과교재연구(Chinese Dialects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3
중국어 교과과정 발전연구(Chinese Language Curricular Development)	3
중국어 교육학 설계(Chinese Language Instructional Design)	3
중국어 언어능력 측정과 평가(Chinese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3
중국어교육 보급과 평가(Diffusion and Assessment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3
이중 국어 교육(Bilingual Education)	3
중국어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in Chinese)	3
미디어와 중국어 교육(Media and Chinese Language Instruction)	3

중국어 컴퓨터 활용교육(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in Chinese)	3
중국어 교육학 특강(Seminar in Chinese Instructional Methodology)	3

③ 중국언어학(최소 6학점 이수)

중국어음성학(Chinese Phonetics)	3
중국어방언학(Chinese Dialectology)	3
중국어음운학(Chinese Phonology)	3
중국어 형태론(Chinese Morphology)	3
현대중국 어휘학(Modern Chinese Lexicography)	3
대만 복건어 福建語와 중국어의 상호영향	3
언어와 문화 연구(Studies in Language and Culture)	3
언어예술과 상호대화(Language Art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3
중국어문자 이론과 응용(Theory and Application of Chinese Character)	3
중국어언어정책연구(Language Policy in China)	3
중국어문법 특강(Seminar in Chinese Syntax)	3

④ 일반언어학(최소 2학점 이수)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3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	3
중국어 읽기의 심리인식	3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3
언어화용론(Pragmatics)	3
언어의미론(Semantics)	3
대화분석(Discourse Analysis)	3
대조분석과 오류분석(Contrastive and Error Analysis)	3
현대언어학이론연구(Advanced Topics in Current Linguistic Theories)	3

⑤ 기타

연구방법(Research Methodology)	3
지도연구(Directed Research)	2

교생실습(Teaching Practicum)	2
석사논문(Master's Thesis)	0

이외에도 해당 연구소 학생은 모두 졸업 전까지 반드시 72시간 7주 이상의 실습경험 및 재직 증명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생실습' 교과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해외합작의 중국어교육센터에 가서 실습하는 해외 실습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당 연구소는 매년 3~5명의 대학 원생을 세계 각지의 중국어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실습강사를 맡기고 있는데, 그 파견 기간은 2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다. 현재 해당 연구소와 합작을 맺고 있는 학교로는 국내의 각 중국어센터 외에도 해외의 여러 학교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미국의 명덕중국어여름학교 明德暑期中文學校·미들베리 대학 Middlebury College·하와이 대학교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버클리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윌리엄스 대학 Williams College·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등이 있고, 한국의 한림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Auckland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대학에서는 기숙사와 시급 강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언어교육학이론을 현장경험을 통해 결합할 수 있는데, 실로 좋은 기회라 하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을 통해 배출된 정규 대외중국어 교사는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의 첨병이라 말할 수 있다. 졸업생이 아직 많지 않지만 모두 정규 과정을 거친 요원들로서 앞으로 대외중국어교육에 지대한 성과를 발휘하리라 짐작된다.

이상으로 현재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의 양성 현황에 대한 소개를 마친다.

3. 대만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 양성 분야에서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 아래에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외중국어교육학에 대한 시각 재정립 문제

최근 들어 중국대륙이 대외중국어교육학 분야에서 오늘 같은 성과를 거둔 원인을 찾자면 마땅히 정부당국과 대외중국어교육학에 종사하는 행정관료·교육인·연구자들의 지원과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육학계를 돌아보건대 대만사회의 변화, 정부의 지나친 '본토화 本土化' 주장으로 방언(대만말·객가어 客語) 교육의 대두 등의 요인에 의하여 중국어 교육은 점점 침체일로에 있다. 최근에 대외중국어교육을 개설한 대학과 사설기관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긴 했지만 제각기 외로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기관이 나서서 총체적인 계획과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한 시각 역시 '보급교육 推廣教育' 정도의 근시안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당국은 대외중국어교육학이 몇 년간의 부단한 발전을 거쳐 이미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았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타이베이 臺北와 베이징 北京에서 거행된 세계중국어문교육학술세미나 및 전 미국중국어문교사학회에서 주최하는 연중회의에 발표되는 논문이 매우 많고 토론이 매우 뜨거운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학계 상황에서 대만은 의외로 전국 각 대학 가운데 대외중국어교육학과가 아직

없다. 중국어교학대학원도 각계각층의 재축이 여러 차례 있어온 끝에 1995년에야 비로소 대만사범대학교에 유일한 대학원이 성립될 수 있었다.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대외영어교육학과 및 연구소는 매우 일찍부터 설치되어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많은 대학이 학사·석사 과정뿐 아니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외영어교육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방면의 전문 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에서 대외중국어교육을 지도하는 대다수 종사자들은 대외영어교육학의 학위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교원의 자질 향상은 물론 대외중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만의 교육당국은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의 현실과 현황에 대해 총체적이고도 철저하게 검토·연구하여 즉각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이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대외중국어교육정책을 시정하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대륙의 대외중국어교육은 바로 국무원 산하 대외중국어교육지도팀 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이 늦은 상황에서도 대만에 비해 앞서 나갈 수 있었다.

2) 교사 양성 문제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학 교사 양성은 민간부문에서 현재 '세계중국어 문교육학회 世界華語文教育學會'만이 중국어교사 고급연수반 및 단계별 연수과정반을 정기적으로 개설하여 재직중인 중국어교사의 연수과정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부문에서는 단지 국립대만사범대학교의 중국어교학대학원에서 소수의 인원에게 재직중인 중국어교사의 연수과정 기회를 주고 있다. 몇 년 동안 팽팽히 맞서며 타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 부설

언어센터의 '중국어교사의 편제화 華語教師納入編制'에 관한 법안은 이러한 교사 양성 문제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의 정식 편제에 들어가려면 대학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사는 중국어 또는 그 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세 단계 세 번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현재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6백여 명의 대외중국어 교사들에게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에 모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하려면 백여 년은 족히 지나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대만은 교육부 차원에서 아니면 교민업무위원회와 합작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국내외 중국어교사 교육학술세미나를 비롯하여 순회강연·워크숍 등의 재직중인 중국어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트레이닝을 정기적으로 많이 주최할 필요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땅히 대외중국어교육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더 많은 대외중국어교육학과 및 그 대학원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교사의 편제화에 관한 논의를 일소하고 대외중국어교육 교사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

3) 교사의 권익 보장 문제

현재 대만의 각 대학 언어센터의 대외중국어 교사들이 모두 정식편제 안에 있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외중국어 교사의 권익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외중국어 교사들은 낮은 시급 강사료를 받는 것 외에 의료보험·연말보너스·퇴직금 등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대외중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의욕 하나로 헌신적으로 종사한다고 보아야한다. 이

분야에 대한 강한 의욕과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으면 이 어렵고 힘든 교육사업에 종사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는 이렇게 내버려 두면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없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대외중국어 교사의 권익을 증시해야 마땅하며, 제 일선에서 민간외교의 첨병역할을 수고로이 종사하는 교사들을 정규편제에 넣어야 한다. 대외중국어 교사들이 응당 누려야 할 권익을 향유하고 국내외 어디에 있든 그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대외중국어교육 미래 발전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교원자질 감정 문제

현재 대만의 대외중국어 교사들 중 소수만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대다수 대외중국어 교사 중에는 교원자질수련과정을 거친 이도 있지만 어떠한 연수과정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들도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교원의 자질은 천차만별이라 하겠다. 구미의 여러 나라를 살펴보건대, 대학 내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중국어 교사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내에서 외국어교육에 종사하려면 소정의 교육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교원자질 감정시험을 통해 교원증명서를 획득해야만 비로소 교육현장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대만 교육부는 하루 속히 학자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대외중국어 교원자질 감정제도를 공동으로 제정하여 해당부문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한다면 대외중국어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대외중국어교육학의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임이 확실하다.

5) 중국대륙과의 교류확대 및 해외 중국어 교육학계의 수요에 대한 주동적 지원

양안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중국문화를 전파하자는 데에는 양안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교류를 확대해야 그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외중국어 교사의 교류에 있어서도 교사를 서로 파견하여 강습하거나 연수를 받게 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합작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양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해외 중국어 교사의 수요에 부응하며 아울러 각 나라에 적합한 중국어교육용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교육현장의 사회적 배경·문화적 특색·정체자와 간체자의 병치·주음부호와 한어병음의 겸용 등을 잘 아우른 교재를 만든다면 중국문화를 더욱 용이하게 전파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4. 대만의 한국어 교사 양성 현황 및 건의

대만에 현재 한국어문학과가 있는 대학은 국립정치대학교와 사립중국어문화대학교 단지 두 곳뿐이다. 그중 중국문화대학교는 학사반 외에 2000년에 석사반을 증설하였다. 양 교 한국어문학과는 주된 설립 취지는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잘 사용하면서 남북한 역사·외교·정치·경제무역사무 등의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이다.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석사반 개설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 구문론, 훈민정음연구, 한국한자음과 훈의 변천연구, 한국어 속어연구, 남북한 언어연구, 한국어 형태론, 한국언어학사연구, 중한문학비교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연구, 한국산문연구, 한국고전시가연구, 한국현대시가연구, 한국작가론 등.

이상과 같은 개설과목은 모두 2학점이며 한국 언어·문학 분야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한국 언어·문학을 연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장래 한국어교육학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 말 할 수 없다.

현재 양 교의 중국인 교수(정치대학교 7인 중 박사 4명, 석사 4명; 중국 문화대학교 8인 중 박사 4명, 석사 4명)들은 모두 한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원들로, 한국의 각 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전통적인 한국어학·문학의 훈련을 받았기에 그 전공분야에 있어서 비록 수준이(齊一높고) 정통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한국어 교수 방법에 필요한 '한국어교수법'·'말하기·듣기·쓰기 지도법'·'정확한 한국어 발음 연습'·'한국어 어조'·'교과과정론'·'교과교재작성' 등의 기본 과정 수업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이다. 동시에 이들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라서 신지식을 배우는 취지에서라도 다시 한국에서 충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편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각 국의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한국어교육을 전문으로 연수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에 전문적인 연수기관에서 여름·겨울 방학 동안 한국어교육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단기집중식의 교육방식을 채용하여 연수를 원하는 각 국의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해외 한국어교사의 교육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만의 교육부와 교민업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겨울삼야 매년 여름·겨울 방학에 각 국을 돌며 단기성의 해외한국어교사 연수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가·학자들을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해외에서 강의 및 좌담회를 연다면 반드시 각 국의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 폭넓은 환영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이밖에도 특히 대만에 탄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다면 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어문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이가 오래지 않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자군의 세대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비록 상술한 양 교는 모두 한국의 몇 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서 교환학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1년 간의 학점인정 교환에 제한되어 있어서 교원 양성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한국어는 대만의 일반대중들에게 ‘희소 언어’로 인식되어 활로가 좁은 데다가 한국유학비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자비로는 한국 유학을 엄두도 못내는 게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문화를 선양한다는 입장에서 많은 장학제도로 장려하거나 각 대학에서 장래 외국에서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외국 대학의 추천형식을 통해) 수업료 면제혜택을 주어 한국어를 배우게 한다면 각 국의 한국어교사 양성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문화가 세계 각지에 전파하는 데에도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고서 해외 한국어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부 기관이 강력히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외한국어교육의 총체적인 기획과 활동을 전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대만의 대외중국어교육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한국어가 세계에 전파되는 날이 더욱 빨리 도래할 것이다.

참고 문헌

- 曹逢甫, 「양안 중국어교육과 언어학연구-대륙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의 감회 海峽兩岸的華語教學與語言學研究-訪問大陸歸來有感」, 『화문세계 華文世界』, 1992.12.
- 黃麗儀, 「우리나라 중국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건의 對我國推展華語教學的幾點建言」, 『화문세계』, 1995.6.
- ,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외중국어교육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如何提升我國對外華語教學在世界上的競爭力」, 『화문세계』, 1997.6.
- 劉咪咪, 「중국어교육에 관한 몇 가지 견해 關於華語教學的一些想法」, 『화문세계』, 1997.3.
- 陳惠玲, 「대만 대외중국어교육의 향후 추세와 전망 臺灣對外華語教學未來的趨勢與展望」, 『화문세계』, 1997.6.
- 王建華, 「중국어 교육에 대한 성찰 中國語文教學的省思」, 『중국어문 中國語文』, 2000.2.
- 葉德明, 「사회변화 아래서 타이베이 국어와 대외중국어교육의 시대에 부응하는 방법 社會變遷下的臺北國語與對外華語教學應運之道」, 『교육기술과 매체 教學科技與媒體』.
- 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 『국립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학대학원 요람 國立臺灣師範大學華語文教學研究所簡介』, 2001.
-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 『세계중국어문교육학회요람 世界華語文教育學會簡介』, 2001.
- 중국어문화대학교, 『중국어문화대학교요람 中國文化大學簡介』, 2001.
- 교육부, 『교육부교민교육위원회요람 教育部僑民教育委員會簡介』, 2001.
- 대만사범대학교 중국어교육학연구소, 『대외중국어통신 對外華語通訊』, 2001.7.

■ 中文提要

台灣對外華語教學師資的培育
— 兼論台灣韓語教學師資的問題(摘要)

蔡連康

台灣的對外華語文教學已有四五十年的歷史，過去由於台灣之政治經濟各方面較為進步，同時又保持了中國文化的傳統，教學方法也較大陸先進，所以曾是外籍人士學習華語的第一選擇。

然而，自從八〇年代後半大陸實施改革開放，及世界各國在二十世紀末掀起了一股學習華語的熱潮後，中國大陸掌握了契機，首先成立了「國家對外漢語教學領導小組辦公室」，積極推動漢語教學，不但在各個重點大學設立對外漢語中心，大量招收學生，同時也成立了對外漢語教學的研究所碩士班和博士班，以進行師資的培訓。另一方面也積極與國外的學校進行交流。再加兩岸的中國語文經過了四五十年的阻隔與各自發展，在文字、語音、語彙及語用各方面都有了相當大的不同；另以學習者的心理及認知而言，總會比較認為中國大陸的語言文字體系才是中文的主流；再加上有十二億人口在使用作為後盾，因此，姑不論兩岸之中文熟好熟壞，中國大陸的普通話先天上就較佔優勢。再加大陸的人文、史蹟較台灣為豐富，自然風光更為秀麗，如果中國大陸的經濟及政治再加以改善，恐怕不出數年，絕大多數的外籍人士都會選擇到中國大陸去學習中文。

由於大勢所趨，台灣在對外華語的優勢，近年已逐漸為大陸所取代。除了有以上所述之因素外，台灣對外華語教學上，尚存在有根本性之問題。有鑒於此，本文針對台灣對外華語教師養成之具代表性之機構如世界華語文教育協會、國立台灣大學文學院語文中心及制度化培育對外華語文教師人才的國立台

灣師範大學華語文教學研究所詳加介紹，藉以對現在台灣對外華語教學的現況有所瞭解，並加以探討與發掘問題。同時藉探討台灣對外華語師資之養成問題，觀照台灣韓語師資之培育問題，亦冀能對台灣的韓語教師養成之問題有所建言。